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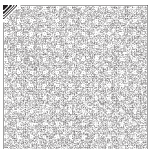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183호

2018년 7월 15일(나해)

연중 제15주일
(농민 주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염수정
편집 홍보국 편집디자인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신내동성당 | 1992년 9월 설립

입당송 | 시편 17(16), 15 참조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흡족하리이다.

제1독서 | 아모 7, 12-15

화답송 | 시편 85(84), 9ㄱ-ㄷ과 10, 11-12, 13-14(◎ 8 참조)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

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제2독서 | 에페 1, 3-14

복음환호송 | 에페 1, 17-18 참조

◎ 알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복음 | 마르 6, 7-13

영성체송 | 시편 84(83), 4-5 참조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최규하 다니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 길을 떠날 때, 아무 것도 가져가지 말라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최후 만찬 때에 몸소 허리를 굽혀 그들의 더러운 발을 다정스레 씻어주십니다. 이 부분을 묘사하며 요한 복음은,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요한 13,1)고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사랑 가득한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라고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파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신 제자들이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지 예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마태 10,16)라며 세상에 파견되는 당신 제자들에 대한 깊은 염려를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염려스럽다면, 오히려 그들이 길을 떠나기 전에 이것저것 꼼꼼하게 짐을 챙겨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조카가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친구가 문밖을 나설 때면, 형수님과 형님은 유모차부터 해서 기저귀와 여벌 옷, 이유식과 간식 등 온갖 짐을 바리바리 챙기곤 하더군요. 하지만 커다란 가방에 빈틈없이 들어찬 이 무거운 짐을 조카에게 내밀며 “이건 네 짐이니깐 네가 들어!”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꼼꼼하게 짐을 챙겨 들고 다니는 것은 형님과 형수님의 몫이고, 어린 조카는 그저 사랑스러운 웃음을 흘리며 해맑게 발걸음을 옮길 뿐입니다.

문밖을 나서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식량도 여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는 매정함의 발로가 아니라 오히려 지극한 사랑의 돌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네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마련해줄 테니 걱정 말렴!”하고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누구보다 사랑했던 제자들을 파견하는 길입니다.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마음이 짝한데, 마치 유배 보내듯 빈털터리로 내쫓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떠나라 하심은,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함께하시며 다 마련하실 터이니, 너희는 그저 그분을 믿고 복음 선포에 전념하여라”라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갖가지 현실적인 염려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겠지만, 온갖 걱정과 파문혀 불안해하며 하느님을 잊고 지낼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아버지 하느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지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루카 12,29,31)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머무르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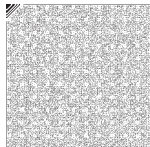


신내동성당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7나길 5

수서동성당 신내동성당 월계동성당



신내동성당은 1992년 9월 상봉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백동성당(현 혜화동성당)이 설립된 지 9년 후인 1936년에 본당 소속의 피울공소(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신내리)가 생겼습니다. 신내리공소로 편입된 지역은 경기도 고양군 일부 지역이었는데 1942년 제기동성당이 설립되면서 신내리의 피울공소는 제기동성당 관할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1955년 교우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대지를 교회 부지로 봉헌해 강당을 마련하고 1955년에 노기남 대주교를 모시고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이후 지역 신자들의 노력과 열망으로 1992년 신내동성당이 창립되었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홍보국 차장



정진민 세례자 요한
前 MBC교우회장, 가톨릭상담심리사

| 사랑의 슬픔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 둘 중, 한 친구의 이름은 배두였고, 세례명은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셋은 하루라도 안 보면 못 견딜 정도여서 늘 붙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2학년 여름방학 때 제가 둘을 부추겨서 해수욕장에 놀러 갔습니다. 거기서 배두와 같은 반인 다른 친구를 만나 넷이서 함께 놀다가, 유난히 키 작은 그 친구가 불어난 밀물 때문에 허우적거리며 “배두야~!”하고 부르자 그를 구하러 갔던 배두는 함께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잠깐 한눈파는 사이에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서로 움켜잡고 물속으로 잠기는 장면을 목격한 저는 파출소와 경비정으로 뛰어다니며 온갖 애를 썼지만, 결국 하루가 지나서야 사체를 찾았습니다. 부모님들이 모두 오셔서 사태를 수습했고, 사체를 보지도 못하게 한 부모님들 때문에 남은 우리 둘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앉아서 하루 종일 펍펍 울었습니다.

죽음이 그렇게 허무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광대한 우주 공간 어느 곳에도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린 허무함’은 ‘삶과 죽음’에 대한 엄청난 의구심으로 대체되었고, 대학입시도 실패하여 재수를 하면서 철학과를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입학 후, ‘불교학생회’에 들어가 3천 배를 해야 하는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계를 받아 불심을 다지던 차에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8월 피약별 아래 흙먼지 폴폴 날리는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던 중, 포악한 조교가 실수한 훈련병을 너무도 무지막

지하게 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피가 터지고, 먼지투성이로 쓰러진 그의 눈이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는 그 순간, 그의 눈빛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느님, 도대체 어찌하여 인간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는 처절한 절망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에서 넓은 유리판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흩어지면서 하늘 멀리 사라져 버리는 것과 동시에 “불성이 인성이라고? 저런 짐승 같은 조교의 인성에서 불성은 무슨 불성~”이라는 생각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바로 다음 실내 교육 시간, 저는 덩치 큰 동료의 등 뒤에 숨어 앉아, 50분 동안 내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울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한없이 불쌍한 연민’의 오열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 슬픔은 하느님이 제게 주신 ‘사랑의 슬픔’이었고 ‘또 다른 부르심’이었습니다. 기쁨을 품고 있는 사랑은 반드시 슬픔도 간직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사랑을 잃었을 때 우리는 더욱 슬프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기뻐하셨지만, 눈물도 많이 흘리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나눌 것이 없다면,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밥이 될 수 있다”라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장례미사 때는 평화의 인사를 안 하나요?

장례미사 때 평화의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한국의 정서로는 가족이나 지인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거나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이들에게는 거부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현대에는, 오히려 이 시간에 평화의 인사를 나눔으로써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



7대 교구장 (프랑스) 1884년~1890년 블랑(Blanc, 백규삼) 주교



올 한 해 동안 서울대교구 역대 교구장에 대해 아주 작은 퍼즐이라도 함께 찾아보고, 그분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직접 찾아보고, 생각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서울대교구가 있기까지 헌신하신 교구장들의 삶이 주는 울림을 전합니다. 우리가 찾은 서울대교구 일곱 번째 교구장님은 블랑 주교입니다.

‘더욱 전교에 힘써 1887년 말에는 14명의 성직자, 14명의 신학생과 신자 수 1만 5,000명을 헤아릴 수 있게 되어, 박해로 거의 다 쓰러져가던 조선 교회를 재건하는 데 성공하였다.’

우여곡절이 많고 힘들었던 리텔 주교님을 도와서 조선교구를 다시 재건하고, 하나하나 다시 기틀을 만드셨던 블랑 주교님은 동료 신부님들을 챙기고, 그 외중에도 전교 활동에 집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셨을까 생각합니다. 큰 박해가 이어지면서 신자들은 더 깊이 숨어들어 가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임을 생각하면 이런 성과는 보기보다 열 배에 가까운 노력이 녹아들어 있다고 봐야겠지요. 그중에 기쁜 소식도 있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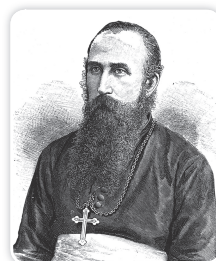
‘1888년 6월 8일에 조선교구를 예수성심께 봉헌하는 장엄한 미사를 올려 신교의 자유를 얻게 된 최후의 승리를 감사드렸다.’

선임 교구장님이 그토록 하고 싶으셨던 일을 잊지 않고 하느님께 봉헌하셨던 게지요. 게다가 방인 성직자 양성을 위해 용산 신학교를 세우시고, 서울에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움으로써 교회가 앞으로 조선교구를 위해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가야 할 바를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블랑 주교님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1~6대 교구장님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으로 보입니다. 6대 교구장님까지는 심한 박해의 상황에서 전교 자체가 힘들었던 시기이고, 계속적으로 죽음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었지만, 7대 교구장님 때는 전교의 자유가 생기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근거지가 되는 중

현성당(명동성당)까지 세우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까지 그렇게 하느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둘 눈앞에 실현되고, 이제는 다른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그것들을 해나가기 위해 고민하셨던 시기로 보입니다. 그때 세우시기 위해 자리를 잡으시고 고민하셨던 종현성당과 약현성당이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지 생각하면, 그때 그 고민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굿뉴스에서 ‘한국 교회의 근현대사 열두 장면’이라는 글에서는, 그간 방인 성직자 양성의 열매가 어떻게 되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블랑 주교는 국내의 신학교도 다시 설립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교육받은 강도영 마르코, 정규하 아우구스티노, 강성삼 라우렌시오가 1896년 4월 26일에 약현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았다. 세 명의 신부는 김대건 신부 이후 50년 만에 탄생한 한국인 사제였다.’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성당을 만들고 성직자를 양성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을 주교님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할 때 꼭 주교님의 모범을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교님.

이도행 토마스 신부



- 1866년 12월 22일 서품.
- 1876년 5월 8일 조선에 입국하여 활동하다가 1882년에 보좌주교로 임명되었으며, 1883년 7월 8일 주교로 성성되었고, 이듬해 6월 20일 교구장을 승계함.
- 박해이후의 교회재건에 노력하였으며, 명동대성당을 건립하던 중 1890년 2월 21일 선종.

사진 한국교회사연구소 제공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환대와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각자는 잉태된 첫 순간부터 부모님과 사회로부터 고귀한 존재로서 환대와 보호와 사랑에 찬 양육을 받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대와 보호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 사랑은 사람이 죽기를 바라지 않고 살아서 잘 있기를 바라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환대와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2018 생명대행진 염수정 추기경님 메시지 중에서) 글 생명위원회



강생의 터 후원 후기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외 원조사업으로, 매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안산에 있는 '강생의 터' 수녀님들께서는 자살위기가정, 중독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성폭력·가정폭력가정, 이주노동자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위기가정을 돌보며 정서적인 지지와 문제해결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2017년 11월 서울주보에 이곳의 사연이 소개되었는데, 총 685명의 후원자께서 117,649,852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넓은 컨테이너에서 솔방울에 불을 피워 라면을 끓여 드시던 형제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자살로 생을 마감한 아들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던 안토니오 형제님(67세)이셨습니다.



후원금으로 형제님이 생활하시는 컨테이너 내부를 말끔히 치워드리고, 수도와 가스를 연결해 싱크대와 가스레인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앞마당을 말끔히 정리하고 천막을 쳐서 여름에는 햇빛을 가리고 겨울에는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막공장 사장님께 설치비를 드리려 하니 직접 찾아다니면서 좋은 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후원을 통해 도움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라도 좋은 일을 하게 되어 자신에게도 복이라며 한사코 받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님께서는 요즘 컨테이너 앞 텃밭을 가꾸느라 분주하십니다. 이렇게 생명을 키우다 보니 자신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형제님. 상추, 썩갠, 오이, 감자, 파, 양파 등 각종 야채를 수확해서 수녀님과 봉사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기쁨에 형제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사랑이 형제님에게 흘러 들어가고 그 사랑은 다시 천막공장 사장님의 마음을 훈훈하게 적시고, 그렇게 이어진 사랑이 다시 형제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형제님이 손수 기른 야채를 뽑아 커다란 봉지에 꼭꼭 담아 주시면 그것은 또 독거 어르신들 밥상에서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랑으로 차려지고, 그 어르신들은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나눔과 돌봄이라는 선한 일을 하는 곳에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생명의 순환을 일으켜 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강생의 터)”

수녀님들께서 가정방문을 다니시기에 자동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잦은 고장과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이 후원해 주신 덕분에 차량을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후원금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였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정서적 지원(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 2) 의료비 지원, 3) 장학금 지원(가난으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4) 중독치유 프로그램 및 한글학습(알코올중독 치료자들이 단주생활을 유지하도록 중독치유 프로그램 진행 및 한글 학습), 5) 우울증 환자를 위한 야외활동 및 바깥활동, 6) 지역사회기관 연계(활동도우미를 지원받거나 기초생활 수급권 획득하고, 생계비나 도시락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

가장 절박한 곳에서 하느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수녀님들께서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cpbc TV



여기 두 명의 신부가 있습니다. 각자 방식은 다르지만, 힘들고 어렵게만 여겨지는
우리 신앙생활을 성덕(聖德)의 길로 안내할 친절한 동반자. **김인호 신부**와 **마진우 신부**를 소개합니다!



I 영적 건강은 나에게

김인호 루카 신부(대전가톨릭대 교수)

흔히 ‘왜 종교를 가지십니까?’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김인호 신부는 신앙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날 우울증을 고치기 위해 성당에 다니던 한 자매님이 찾아왔어요. “성당에 다니면 치료가 될 줄 알았는데, 맨날 ‘내 탓이오’ 하니 죄책감만 커지고,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우울감만 더 깊어져요” 하시더군요. 신앙은 절대 심리치료 같은 것이 아닌데 말이죠.



김 신부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자칫 사이비 종교에 빠질 위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신앙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김인호 신부의 친절하 강의를 통해 건강한 신앙생활을 꾸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신부의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본방: 목요일 아침 8시 | 재방: 금요일 오후 1시 · 토요일 새벽 1시 · 일요일 아침 7시 · 월요일 저녁 8시



I 마음을 열면 신앙이 보인다

마진우 요셉 신부(대구대교구 가정복음화국)

성경의 50번째 책이자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어제든 오늘도 바라보는 사제가 있습니다. 마진우 신부의 ‘요한복음’ 사랑은 남다른데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듬뿍 묻어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함축적인 사랑의 언어로 되어있어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체험이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도와 드리면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은 무엇인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는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함께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정겨운 마진우 신부는 이미 유튜브를 통해 많은 신자들에게 건강한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겸손기도 신부의 ‘와서 보시오!’ (7월 20일 방송 시작)

본방: 금요일 아침 8시 | 재방: 토요일 새벽 2시 · 월요일 오후 1시 · 화요일 저녁 8시 · 수요일 밤 12시

오늘(7월15일)은 ‘농민 주일’입니다.

교회는 농민들의 노력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한마음으로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도록 일깨워 주고자 합니다. ‘농민 주일 담화문’은 서울대교구 홍보국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알림마당-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09년 7월16일 이병문 베드로 신부(65세)
- 2009년 7월20일 최석우 안드레아 몬시뇰(87세)

여름철 미사 참례 시 복장과 자세

서울대교구의 성당은 여름철 미사 참례 시의 복장과 자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 성당에 올 때는 복장을 단정히 합니다.
- 슬리퍼, 반바지, 소매 없는 옷은 피합니다.
- 기도서, 성가책, 서울주보 등으로 부채질하는 것은 삼가합니다.

* 서울주보 게재신청 안내 *

- 서울주보 게재신청은 **교회기관·수도회** 이거나,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서울대교구 단체사목부**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농민을 위한 기도

-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주에 질서와 조화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어
온갖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 농업이 경시되는 상황에서도
땀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이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농사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 날이 갈수록 생명이 죽어 가고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는 오늘날에도
모든 이가 마음의 고향인 농촌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온갖 죽어 가는 것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 그리하여 사랑과 일치와 신뢰가 싹트게 하시고
농촌과 도시가 하나로 이어져
온 누리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교구알림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순교자 ‘허인백 야고보’

때: 매월 셋째주(화) 7월17일 오전 11시(131회)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한국교회사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7월20일(금) 11시30분

곳: 가톨릭평화방송 10층 성당

문의: 756-1691(내선 1번) / www.history.re.kr

본당 수도자 연수 및 정기총회 · 구역반장학교(4기)

문의: 727-2062, 3 사목국 일반교육부

1) 본당 수도자 연수 및 정기총회

주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때: 9월3일(월) 오전 9시~9월4일(화) 오후 5시(1박2일)

곳: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

연수비: 1인 8만원(8월10일까지 접수)

2) 구역반장학교(4기)

대상: 신입 구역장 · 반장(8월17일까지 접수)

때: 8월26일(일)~9월16일(일) 4주간(8월26일 · 9월2일 교육시

간: 13시~16시, 9월9일 · 9월16일 교육시간: 13시~17시30분)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교육비: 1인 5만원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727-2336

유경서 개인전(회화): 제 1전시실

가톨릭청년미술가회아트마켓전: 제 2, 3전시실

전시일정: 7월18일(수)~24일(화) 오전까지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심리학회 교육생 모집

대상: 1급 또는 2급 교육수련을 원하는 가톨릭 신자(자격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문의: 727-2126, 7

일정: 과목별 교육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신청방법: 홈페이지 가입 후 메뉴-회원전용-교육수련신청

신청기간: 7월15일 부터 과목별 개강일 전까지

상세내용-홈페이지(<http://seoulccpa.catholic.or.kr>) 참조

민족화해위원회

1) ‘내 마음의 복讎 본당 갖기’ 미사봉헌 / 문의: 727-2420

때, 곳: 7월17일(화) 오후 7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성천본당 · 영유본당
전대사 일반 조건을 충족한 뒤, 본 미사 참석시 ‘평신도 회관’을 맞아 선포한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평화·농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18 한반도평화나눔포럼 자원봉사자 모집

때: 8월31일~9월1일 · 3일

모집인원: 00명(행사 지원 및 통역(영어) 가능자) 등

신청방법: 이메일(2018peacesharingforum@gmail.com) 및

전화(3789-0815)

한일탈핵순례 · 환경사목위원회 · 하늘땅물벗월례미사

1) 2018년 한일탈핵 평화순례 및 간담회

주제: 핵없는 평화세상!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지키게 하소서! / 신청기간: 7월2일(월)~13일(금)

때, 곳: 9월13일(목)~16일(일), 서울-영광-부산-대전-서울

주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신청방법: 성명, 주민등록번호(여행자보험 가입), 핸드폰, 소속(본당 · 수도회), 숙박일수, 입금자명 등 작성

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ecocatholic@hanmail.net)

문의: 727-2272, 2278팩스: 727-2271)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회비: 3박4일 참가자 20만원 · 수도자 10만원, 1박

2일 참가자 8만원 · 수도자 4만원(계좌: 우리은행

1005-902-905060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입금하실 때 이름 앞에 ‘생태’라고 꼭 표기해주시고

(예: 생태홍길동), 727-227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사목위원회 · 하늘땅물벗 월례미사

대상: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때, 곳: 7월19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성당

환경사목위원회 · 하늘땅물벗 월례미사는 매월

세번째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인준단체 알림

모임

낙태 후 화해 피정(착한목자수녀회)

때: 7월24일(화)~26일(목) 2박3일 / 회비 없음
 곳: 성 빈센트 환경마을 / 문의: 010-9318-1366

14동작지구 성령쇄신봉사회 낮피정

때: 7월19일(화) 13시~16시 / 강사: 김선태
 곳: 흑석동성당(가나의 혼인성당) / 문의: 010-3341-1354

삼성산 청장년 성령 기도회(야훼이레)

때: 매주(토) 19시~21시30분 / 문의: 874-6346, 5008
 곳: 삼성산 피정의 집 3층 중강당 / 지도: 이창진 신부

영신수련 3박4일 피정(메리워드 교육관)

때: 8월2일(목)~5일(일) / 문의: 010-9608-0208
 곳: 예수수도회 메리워드 교육관 / 1:1 개인지도식

한티순교성지 피정 / 문의: 054)975-5151

강사: 권동근 신부(한티순교성지)
 때: 7월23일(월) 10시~16시 / 주제: 나보다 더(순교영성)

삼성산 피정의 집 성모승 2천번 기도회

때, 곳: 7월16일(월)·23일(월) 9시30분~17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874-6346, 010-3310-8826

천호영성 2박3일 피정 / 문의: 063)263-1004

주제: 예수마음기도 / 지도: 권민자 수녀
 때, 곳: 8월3일(금)~5일(일), 천호성지 피정의 집

황사영 · 성 남종삼 성지 도보순례(송추성당)

때: 매월 마지막주(토) 오전 10시 / 다음카페: 송추성당
 순례객을 위한 미사와 피정 / 문의: 010-6264-7244

3은평지구 성령쇄신봉사회 / 문의: 010-2696-2539

찬양, 말씀, 치유 미사(양형영성체·안수) / 김재영 신부
 때, 곳: 셋째주(화) 7월17일 13시~17시, 갈현동성당 지하성전

수도자와 함께하는 성지순례(아씨시의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때, 곳: 10월8일~22일, 이스라엘·스페인·파티마
 문의: 010-6419-2694 권 루치아 수녀

노인 사발 피정 '죽음-웰다잉(선종)' 강의 · 미사

곳: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쉼터(주최)-종로3
 가 창덕궁 앞 / 문의(접수): 766-7370

죽음(선종)	매월 넷째주(화) 7월24일 10시~14시
심판·지옥·연옥·천국·성체·성모님	매월 셋째주(화) 10시~14시

지리산 피아골 피정의 집

출발: 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7시10분(죽
 전, 신갈 7시30분 승차) / 문의: 010-5388-5706

휴가 피정	7월27일~29일, 7월30일~8월1일, 8월3일~5일, 8월6일~8일, 8월10일~12일, 8월13일~15일
피정	9월8일~9일, 10월20일~21일, 10월27일~28일

다물피정의 집 하계 특별 피정

주제: 하느님 섬리 안에 머물 / 문의: 010-8906-2141
 때: 7월27일~29일, 8월6일~8일, 8월10일~12일

가톨릭초등교육자회 여름 피정

주제: 그리스도인의 영적 식별 / 강사: 박일 신부
 때: 7월28일 9시30분~16시 / 문의: 010-2822-6818
 곳: 청소년회관(혜화동) / 회비: 3만원(사전 접수 필수)

'참 행복의 길' 피정(마리아의 딸 수도회)

대상: 청년, 성인, 개인, 소그룹
 때, 곳: 11월까지 매월 첫번째(일) 8월5일 10시~17시, 서
 울 마리아니스트 영성센터 / 문의(접수): 010-2106-6134

성모승천수도회 십자가 도보 성지순례

때, 곳: 8월18일, 성거산 성지·남방제(대전교구)
 출발: 7시30분 전철 2·4호선 사당역 공영주차장
 문의: 010-3080-9104(사전 접수 필수)

소록도성당 피정 / 문의: 010-5388-5706

때: 9월1일~2일, 9월8일~9일, 10월6일~7일, 10월13일
 ~14일, 10월20일~21일, 11월3일~4일 / 출발: 전철 2·4
 호선 사당역 1번 출구 7시10분(죽전, 신갈 7시30분 승차)

기적의 메달과 함께하는 7월 기도 모임

대상: 관심있는 모든 젊은이 / 문의: 010-6625-
 0927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말회
 때, 곳: 7월21일(토) 15시~19시, 전진상회관(명동)

성심교육관 2박3일 무료 찬양 치유 피정

때: 7월20일(금) 22시~22일(일) 15시
 곳: 성심교육관 / 문의: 031)262-7600 차량은행
 묵주100단기도회: 매주(수) 19시30분~다음날 2시(미사)

젊은이 빈마음 피정(1박2일)에 초대합니다

때: 8월11일(토)~12일(일) / 회비: 1만원(선착순 접수)
 곳: 성 빈센트 드롤 자비의수녀회(주최) 본원
 문의: 010-8833-8107(www.vincent.or.kr)

제주 성이시들 자연 피정 / 문의: 064)796-9181

올레, 미사, 기도, 강의 /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때: 7월30일~8월1일, 8월3일~5일, 8월7일~9일, 8
 월15일~18일, 8월31일~9월2일, 9월11일~13일

나를 만나는 휴가 피정(개인 피정)

때, 곳: 8월4일(토) 16시~5일(일) 16시·8월11일
 (토) 16시~12일(일) 16시, 소사 성분도 은혜의 집
 (주최,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수녀회)
 문의: 032)348-1910, 010-2111-4431

사랑으로 가는 영성 피정 / 문의: 723-5425

내용: 강의, 성시간, 미사, 안수, 고해성사 / 회비 없음
 때, 곳: 매월 세번째(화) 7월17일·8월21일·9월18
 일·10월16일·11월20일·12월18일 10시~16시, 가
 톨릭회관 3층 강당 / 지도: 전진 신부(예수고난회)

13관악지구 성령봉사회 낮피정 / 문의: 010-5049-1068

때, 곳: 7월17일(화) 13시~16시, 중앙동성당 / 강사: 이교정 신부

제7차 성령 안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영성 피정

주제: "너 어디 있느냐"(창세 3:9), "무엇을 찾느냐"(요한 1:38)
 강사: 정진석 신부, 유용덕 신부, 전홍식 신부, 두
 현자 회장 / 문의: 010-5333-5583, 010-3008-2981
 때, 곳: 7월27일(금)~29일(일), 아론의 집(의왕시)
 주최: 미국 중남부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하찬사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수도회)

7월~8월 여름 가족휴가는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자연순례(올레길·오름)
 아래 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예약 가능한
 때: 7월23일~25일, 7월27일~29일, 8월1일~3일, 8월5
 일~7일, 8월12일~15일(해수욕 일정), 8월18일~20일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사랑은 선택이다(상호의존관계에서 회복) 하루 피정

네 사람 중 한 사람이 상호의존자입니다. 그들은
 알콜, 약물, 돈, 일, 음식, 또는 성에 의존하며 그
 런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상호의존의 순환을 깨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때, 곳: 7월21일(토) 10시~17시, 낙성대동성당(주최) 2층 강당
 강사: 문종원 신부 외 / 계좌: 농협 281-02-310603 나성경
 회비: 3만원(중식 제공) / 문의: 877-2131, 010-3078-5249
 카페: <http://cafe.daum.net/mjl1992> 고통을 넘어서

교육

ICPE선교회의 '새로운 복음화학교'

때, 곳: 8월10일~15일(5박6일), 갖들이 피정의 집(수원)
 문의: 010-2653-5152 김기환

어농성지 청년 찬양 캠프 / 문의: 031)636-4061

주제: 신앙의 기쁨 젊음과 함께 / 지도: 김태진 신부
 때: 50기 7월21일~22일·51기 8월18일~19일

예비자 통신교리 안내(우편·사이버)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우 04600)
 요금: 1만원 /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2274-1843, 4 / 홈페이지: cdcc.co.kr

노틀담오르프 연구소 여름교육

곳: 노틀담교육관 3층 오르프 연구소
 문의: 010-7392-1227 권현경 수녀

단기 지도자 과정	8월6일~8일 9시~18시
오르프 어린이 여름캠프	8월11일(토) 11시~12일(일) 11시

평생교육(한국여성생활연구원)

커피교육(홈카페마스터 과정)	문의: 727-2472
학력인정 성인초등, 중학교, 한글, 영어기초	
자격증·종이접기, 덕종이인형, 우쿨렐레	문의: 727-2471

안동시 지원 가톨릭상지대학교 운영 귀농귀촌교육

과정: 귀농귀촌 기초반 귀농귀촌 이론·실습·견학
개강: 9월8일, 총7회 50시간, 토요일 / 곳: 안동빌딩(서울)
홈페이지(lead.csi.ac.kr)에서 접수 / 문의: (054)851-3005~8
회비: 자부담 5만원(추가경비는 안동시 및 대학에서 지원)

모하기(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찾기-예수회 수도생활체험학교)

대상: 남녀 고등학생 1~3학년 / 선착순 30명 접수
때: 7월28일(금) 11시30분~29일(일) 16시 / 회비: 7만원
곳: 예수회센터(서강대학교 옆) / 주제: Re-좋은 나
문의: 3276-7706, 010-2273-9416 예수회 청년센터

2018년 가톨릭전례음악(사원) 하계세미나

강사: 이호중, 민은홍, 손주희, 성준, 한금실, 송준, 이호택, 신재상, 백정진, 이보나, 박현미, 최인주
과목: 전례발성, 합창지휘, 그레고리오성가 및 반주법, 시간전례 / 회비: 15만원(1박4식)
때, 곳: 8월24일(금)~25일(토), 참회와 속죄의 성당(파주)
문의(접수): 010-9018-5226 한국가톨릭전례음악아카데미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가톨릭경영자과정 제2기 모집

새롭게 개편된 가톨릭신자를 위한 최고의 경영학·영성 교육과정 / 대상: 기업 임직원, 전문직 종사자, 국공립기관 임직원, 성직자·수도자 등
때: 매주(목) 오후 수업(9월 초 개강, 6개월 과정)
교과과정 소개 홈페이지(http://www.sbs.ac.kr) 내
비학위과정 'S-CAMP'참조 / 회비: 350만원
문의: 705-8030(sgscamp@sogang.ac.kr) / 인원: 55명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집

내용: 성경, 전례, 역사 속의 마리아, 마리아영성, 사도직, 교황문헌, 33일 봉헌기도, 발원 등
계좌: 우리 1006-301-276411 티없이신성심
문의(접수): 010-9620-4820, 774-0448 / 회비: 16만원

낮반	9월6일~2019년 2월	14시~16시	가톨릭화관 205호
저녁반	14일 매주(목) / 6개월	19시~21시	가톨릭화관 318-2호
청년반	9월7일부터 매주(금)	19시~21시	가톨릭화관 318-2호

시스띠나 교회음악원 수강회원 모집

교수: 이호중, 박현미, 이보나 외
문의: 363-2258 김수경 / 다음카페: 시스띠나

성가 발성 교실	초급반 (수) 19시30분, 중급반 (화) 19시30분, 오전반 (월) 11시~(금) 11시
그레고리오 성가	(화) 11시 기초합창지휘 (화) 13시
오르간·성음악작곡	상담 후 결정

제16회 평화방송 영어캠프

미국 캐나다 중·고등학교 입학 상시 문의
문의: 734-0999(www.cpci.com)

미국 캐나다	명문대학 탐방 캠프(9박11일) / 하버드, 프린스턴, 콜롬비아 등 IVY재학생 특강
영국 캠프	옥스포드 브룩스캠프와 서유럽 투어
사이판 캠프	가톨릭 국제 사립학교 영어캠프
필리핀 캠프	1대1 맞춤 영어캠프

제가 주님을 보았습니다(요한 20,18)

주제: 마리아 막달레나, 십자가와 부활의 첫 증인(공개강연) / 기념미사: 구요비 주교 미사 집전
때, 곳: 7월21일(토) 14시~18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문의: 010-3898-7629 가톨릭 여성신학회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부천성모병원)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 있고 알고 싶은 모든 분(선착순 100명)
때, 곳: 8월1일(수)~3일(금) 9시~17시,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성요셉관 5층 대강당 / 참고사항: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및 취업과는 무관한 교육입니다
회비: 5만원(우리 1002-554-540926, 이현숙) 전화접수 후 교육비 입금 / 문의: (032)340-2435, 2530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뇌발달연구검사 참여자 모집

대상: 인터넷 게임 및 스마트폰 이용 청소년(만 12세~18세)
내용: 뇌영상MRI·체형·신경인지검사(검사비 무료)
실시기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중독기술제어센터
검사기관: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접수: 전화상담 후 참여가능 여부 안내
신경인지 검사결과 제공 및 교통비를 포함한 사레비 지급 / 문의: 010-7173-7589, 2258-7586

인천교구 지혜의 샘(북방선교기도공동체) 교육

곳: 부천시 송내동 366-5 지혜의 샘 / (032)343-1871

월	전문 선교사양성반 / 홈페이지(www.jwisdom.or.kr) 참조
화	오전 신약해심·성경통독, 오후 성경도해를·미사·묵주 100단
수	오전 구약해심①·성경통독, 오후 사복음서·미사·묵주 100단
목	오전 구약해심②·성경통독, 오후 모세오경·미사·묵주 100단
금	오전 성경통독, 철야 묵주 100단·미사·성시간·말씀치유·18시~다음날 4시30분
일	10시~18시 묵주 100단·말씀치유 낮기도회 / 18시 미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목요신학강좌

때: 9월13일~10월18일 매주(목) 19시30분(6주)
곳: 사랑의 힘 빌딩 5층(전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회비: 8만원 / 문의(접수): 333-9898 한국CLC

9월13일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태현신부
9월20일	요셉과마리아의 아들, 예수-역사의 예수	김진호박사
9월27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예수의 복음 선포	김진호박사
10월4일	참 하느님이면서 참 인간, 예수	이규성신부
10월11일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규성신부
10월18일	세상 속에서 예수로 살아가기	현재우박사

예수회센터 강좌(9월 개강)

이 밖의 다양한 강좌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center.jesuits.kr) 참조 / 문의(접수): 3276-7733

성경과 영성	화요반	매주(화) 10시~12시	허귀희 수녀
	주말강좌	매주(토) 10시~12시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매주(목) 14시~16시	권오연신부
가톨릭 사회교리		매주(금) 10시~12시	전주희수사
구약성경의 하느님과 나		매주(금) 14시~15시30분	주원준 박사
성경대해	둘째·넷째주(수)	14시~16시15분	송보민수부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9월 정규입학 모집

기간: 단기(1년)·장기(1년 이상)
대상: 초5~중3 / 문의: 2258-8983(www.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커피 바리스타 교육(가톨릭바리스타협회)

사단법인 하랑바리스타협회(가톨릭바리스타협회)의 커피 교육은 기초과정부터 전문가과정까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수료 후 국가등록민간자격증(등록번호 제2018-001473호)도 취득 가능합니다 / 교육내용: 커피 이론,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때: 주 1회 12주 / 교육문의: 010-9040-8306, 010-8889-4405(http://club.catholic.or.kr/barista)

모집

아퀴나스합창단(콰이어·양상블) 단원 모집

합창: 각 파트 약간명 / 문의: 010-2778-2704
악기: 첼로 또는 베이스 1, 바순 1

글라넷 어린이 선교단 모집(글라넷 선교 수도회)

대상: 초1~5학년 / 모집: 합창단, 무용반, 해금반
연습: 매주(토) 10시~12시30분, 수도원(성북동)
문의: 010-3513-1849 지도 신부

간투스 합창단 단원 모집

합창단명: Cantus Choir / 소속: 민족화해위원회
지도: 강주석 신부 / 지휘: 함병일
활동내용: 정기공연, 민화위 행사, 성음악미사(월1회, 참회와 속죄의 성당) / 오디션: 7월20일(금) 19시30분, 행신2동성당 교육관 2층
준비곡: 자유곡 1곡 / 문의: 010-4008-8640 총무

미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열린 미사'

나눔: 이해동 신부(살레시오회)
때, 곳: 7월21일(토) 16시, 골롬반 선교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 문의: 953-0613

사랑이피는기도모임 월례미사

내용: 미사, 강의, 성체조배
때, 곳: 7월16일(월) 13시~15시, 당고개 순교성지
문의: 6253-3373, 010-8360-3700

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후원회 미사와 영성강좌

내용: 프란치스코 영성 강좌, 양형영성체, 안수
때, 곳: 7월16일(월) 10시,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중식 제공 / 문의: 793-2070

예수성심의 어머니와 함께하는 신심미사

내용: 성모님과 함께하는 성시간, 강의, 미사
때, 곳: 7월20일(금) 10시~14시30분,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중식 제공 / 문의: 379-8091 예수성심전교수도회

7월 영화 치유 미사·가톨릭영화제 단편경쟁부문 접수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1) 7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영화 상영 및 기도, 나눔·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7월25일(수) 오전 10시, 가톨릭회관 205-2호

2) 제5회 가톨릭영화제 단편경쟁부문 접수

대상: 2017년 이후 제작된 '존중 그리고 평등'을 주제로 한 30분 이내의 창작단편영화(장르, 종교 불문)
7월31일까지 이메일 접수 / 접수방법: www.caff.kr/competition

인문

삼양동선교본당 재할매장 '살림'

의류, 신발, 가방, 생활용품을 기증받음. 재할매사업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 987-3978

여성 알코올의존자 치료재활 공동체 '행복을 만드는 집'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을 위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문의: 485-8744 / 홈페이지: happiness2004.co.kr

성라파엘심리상담센터

때: (월~일) 주말상담 / 070-4248-7573, 010-3008-4627
아동·청소년·성인 개인, 부부 및 가족 상담
심리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과 부모

제73회 가톨릭 독서콘서트 / 문의: 833-9439

강사: 윤경일(한끼식사기금 이사장)
주제: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이 있습니다
때, 곳: 7월21일 19시, 도림동성당(주최) 대성전

천호동성당 혼인미사 / 문의: 470-5821

유명한 강남권 혼배명소, 웅장한 대성전 스테인드글라스 신축, 꽃으로 뒤덮인 성모동산, 교구 최대 규모의 연회장과 주차장, 유명 스튜디오, 연회업체 / 네이버 '천호동성당' 검색

어르신시설 유료 공동가정생활(바오로 성모의 집)

시설명: 바오로성모의집 / 대상: 치매가 없으신 분(여자)
곳: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98번지
운영법인: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1995년 설립)
문의: 010-7353-6716, 02)381-7510 담당 윤향희 수녀

사별가족 돌봄 프로그램 '사랑샘'

대상: 사별을 경험한 가족으로 회복의 시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배우자 사별에 한함)
때: 8월27일~10월22일 매주(월) 14시~17시(8회)
곳: 가락2동성당(서울시 송파구 중대로20길 20-1)
문의: 010-9637-1612 신 카타리나

가정·부부문제 전화상담 / 문의: 010-4077-5059

안내: 다음카페 '돌개TV' / 최영민 신부(예수회)

희망에코(발달장애인) 마을 일반회원 모집

내용: 장애를 지닌 친구들이 부모와 함께 평생을 살다가 부모사후에도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 구축 / 문의: 982-8431, 010-9323-7203 김성구 신부(도미니코 수도회)
면담 및 한정 접수(기공식 예정)

강서푸드뱅크·마켓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계좌: 신한 100-026-821055 강서푸드뱅크마켓
후원문의: 2635-1377, 2663-1377

18년 상반기 후원해주신 (주)진원무역, 강규환, 김미희, 김영희, 미카엘라, 박루시아, 박수정, 박용숙, 박용철, 박재현, 배금천, 은선경, 최원빈, 최원희, 홍흥근 그 밖의 익명의 기부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서울가톨릭상담센터 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우울·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대상: 개인, 부부, 가족, 청소년 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지구별 상담소: 5지구(노원성당), 9지구(천호동성당), 10지구(송파동성당), 17지구(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727-2137~9 (월~금) 오전 10시~오후 6시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개인심리·가족상담)

전화상담	(월~금) 10시~16시 / 상담전화: 745-1366
대면상담	개인·부부·가족상담 / 문의(접수): 3675-1338

전·진·상 여성심리상담소 / 문의: 726-0700

전문 심리치료	개인, 부부, 가족(자녀), 청소년 및 미술 치료(아동) / 종합심리검사
	심리정서(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성격), 학교, 직장 내의 부적응 소통과 관계의 어려움 등

유관단체 알림

자기 조절을 위한 심리상담

대상: 청소년·성인 / 문의: 775-4831 평화심리상담소
마음과 뜻대로 통제되지 않은 감정, 생각 등의 원인을 살펴 고요한 마음이 유지되도록 조절의 힘을 증장시킴

제37차 가톨릭교사 1일 대피정

주제: 사랑의 학교, 사랑의 교육 / 지도: 이재을 신부
때, 곳: 8월14일(화) 9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10-5509-3217 베리타스 교사회

매제 노래와 함께하는 청소년·청년 기도모임

때: 매월 세번째(토) 7월21일 오후 6시45분
곳: 작은형제회 수도원(경동) 성당
문의: 744-0840 햇살사목센터

베리타스 심리상담센터 / 문의: 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스트레스, 불안, 우울, 공황장애로 인한 정서적·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갈등, 노인치매예방 자기이해·타인이해·관계이해 워크숍: 8월1일(수) 14시~18시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32)930-8500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근무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직원 모집

분야: 연구원 1명(교리 교안 작성 및 교안 강의)
8월3일까지 접수 / 문의: 763-7966(www.chota.or.kr)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가톨릭스카우트 직원 모집

분야: 스카우트 전반업무
서류: 응시원서(양식-굿뉴스), 본당신자 확인서
채용시까지 이메일(seoules@catholic.or.kr) 접수
1차 서류, 2차 면접(개별 통보) / 문의: 762-9857

노동사목회관 시설관리원(정규직) 모집

인원: 시설관리원 1명 / 전화문의 사절
업무: 시설 관리, 주차, 방호 업무
서류: 본당신자 확인서, 교적 사본, 이력서(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2급 소지자 우대)
7월20일까지 우편(우 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95, 5층 노동사목회관)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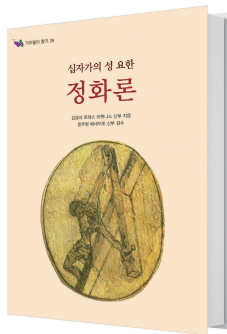
교구청 특수사목사제관

대상: 지방근무자 / 인원: 계약직 0명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신자 확인서(교구 양식) 각 1부씩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우편(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7월22일(일) 도착분에 한함 / 전화문의 사절

목동성당 방호원 모집 / 문의: 2643-2212

분야: 계약직 1명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업무: 시설물 관리 및 미화 방호, 전반적인 업무 (소방 안전 및 가스안전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aos.catholic.or.kr-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신자 확인서 각 1부 / 서류 심사 후 면접(개별 통보)
7월18일(수)까지 사무실 방문·우편(우 08011,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71 목동성당) 및 팩스(2647-6941)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노틀담 수녀회	매월 셋째주(일) 14시~17시	노틀담 교육관(북촌로)	010-7634-2274
예수의 성모 여자 수도회	7월21일(토)~22일(일) / 성소 피정	수도원(강화)	010-2910-4825 윤 스텔라 수녀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7월21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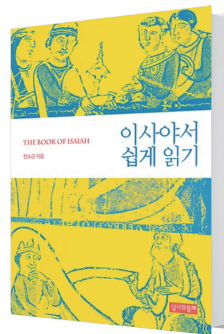


신간

십자가의 성 요한 정화론

김광서 지음 | 윤주현 감수
기쁜소식 | 208쪽 | 7천원
구입문의: 762-1194

이 책은 성인의 신비 사상 중에서 인간이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한 여정에서 거쳐야 하는 정화(淨化)의 과정에 대한 상세한 논술을 다루고 있다. 궁극적 사랑이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정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작(秀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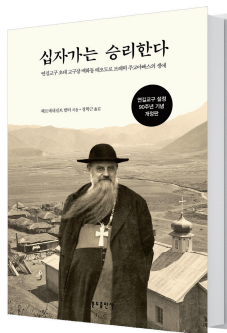


신간

이사야서 쉽게 읽기

안소근 지음 | 성서와함께
252쪽 | 1만3천원
구입문의: 822-0125

이사야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읽기 어려운 예언서이다. 이 책은 딱딱한 해설서이기보다, 쉽게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동반해 주는 읽기 '안내서'에 가깝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읽고 해석하심으로 구원 약속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책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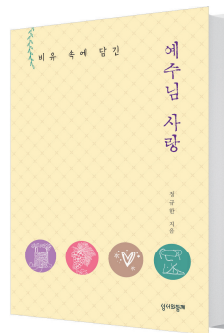


신간

십자가는 승리한다

헤르메네길트 발터 지음 | 정학근 옮김
분도출판사 | 168쪽 | 1만원
구입문의: 2266-3605

1921년 한 독일 테오도르 브레허 신부가 선교의 십자가를 품고 한국 땅을 밟았다. 그는 곧장 선교가 절실한 지역, 만주 북간도로 보내졌고 본래 3년으로 내정된 선교 기간이 30년 동안 이어졌다. 이 책에는 복음의 불모지였던 연길 교구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한 선교사의 분투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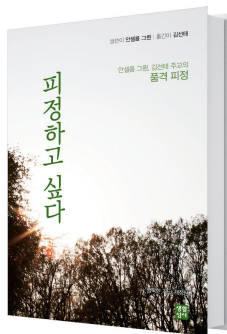


신간

비유 속에 담긴 예수님 사랑

정규한 지음 | 성서와함께
232쪽 | 1만1천원
구입문의: 822-0125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2천 년이라는 긴 간격이 있다. 당시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성경 속 표현이나 비유가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렵고, 금증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을 통해 예수님의 비유를 깊이 이해하고, 그 비유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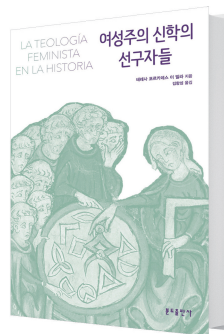


신간

피정하고 싶다

안셀름 그륀 지음 | 김선태 옮김
생활성서 | 192쪽 | 1만3천원
구입문의: 945-5987

그리스도인은 종종 '피정'에 대해 생각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피정을 동경하지만 대부분 동경으로 그친다. 피정에 대한 편견과 오해 때문인데 이 책은 피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단체로 하는 피정으로 피정의 참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피정의 의미를 안내하고 지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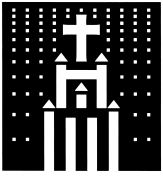


신간

여성주의 신학의 선구자들

테레사 포르카데스 이 빌라 지음
김향섭 옮김 | 분도출판사 | 168쪽
1만1천원 | 구입문의: 2266-3605

여성주의 신학은 비판 신학이다. 비판적 연구는 늘 모순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태어난다. 비판 신학은 모순을 일으키는 기존의 해석을 발견하고 이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해석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잊힌 여성들을 소환해 오늘의 맥락을 성찰하도록 초대한다.



774-1784(☎)
753-1784(FAX)

☎ 본당 연례회 ☎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고찬근(루 카) 신부
부주임 김성은(베 드 로) 신부
선교·교육 김상우(바 오 로) 신부
청년·문화예술 이세호(시 몬) 신부
전례·성음악 장원혁(세례자요한) 신부
청소년 박성진(스테 파노) 신부

미 사 성 가

입당 : 461

봉헌 : 340, 342, 210

성체 : 498, 167, 172

파견 : 29

《 농민 주일 》

7월 셋째 주일인 오늘은 제23회 농민 주일입니다.
농민 주일을 맞이하여 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
본부 이승현 베드로 신부님의 특별강론이 있습니다.

◎ 우리농 명동 보름장

·일시 : 7월 15일(주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 명동대성당 들머리·가톨릭회관 앞마당
·내용 : 각 교구의 생명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제철 생명농산물을 판매합니다.

◎ 명동대성당 엘리사벳 장학회 후원금 접수

엘리사벳 장학회는 1994년 2월 설립되어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배움의 열정은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후원계좌 : 우리은행 004-611313-01-085
명동성당 엘리사벳 장학회

◎ 서유석 신부와 함께하는 음악피정

·일시/장소 : 7월 15일(주일) 오후 2시 / 한강성당
·문의 : ☎ 796-1846 (*회비는 없음.)

◎ 전례봉사분과 안내선교회 신입단원 모집

·대상 : 가톨릭에서 세례 받은
20세 이상 ~ 40세 이하 남녀 교우
·주요활동 : 매주 일요일(11시, 12시) 미사의 안전,
질서유지를 위한 전례봉사
·절 차 : 1차 이메일 접수
(☎교적증명서 및 가입신청서)
2차 인터뷰 (☎일정 추후 공지)
·문의 : 단 장 (율리에따) ☎ 010-2022-1514
교육장 (세례자요한) ☎ 010-9222-2137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 메시지 주시면
가입신청서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 청소년봉사분과 주일학교 여름 캠프

구 분	기 간	장 소
초등부	7/27(금)~7/29(주일) 2박 3일	경기도 안성시 <너리굴 문화마을>

※ 캠프 기간 중 소성당 초등부 주일미사는 없습니다.
※ 캠프에 참가하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 성지미사봉사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 성지미사(월~토 오전 10시)의 해설과 독서,
전례 전반에 관한 봉사에 관심 있는
견진성사를 받은 만 45세 이하 여성 교우
·모집 : 7월 20일(금)까지
·문의 : ☎ 010-2337-4547 (문자 문의 부탁드립니다.)

◎ 여성독서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 견진성사를 받은 28세 이상 45세 미만의
평일 저녁 6시, 7시 미사 봉사가 가능한 교우
·절차 : 전화 접수 후 전화 인터뷰
1차, 2차 오디션 (일정 추후 공지)
·마감 : 8월 26일(주일)까지
·문의 : 단장 ☎ 010-8867-7285

◎ 명동대성당 관리직원(계약직) 모집

·대상 :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서
시설물 관리 및 청소 담당 1명
(시설물 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유경험자)
·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합격자 개별통보)
·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 본당신자확인서, 교적사본
·접수 : 7월 21일(토)까지 사무실 방문 및 우편 접수
※ 전화 문의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7/2-7/8).....28,796,000
· 연중 제 14 주일 헌금.....39,235,570
· 감사헌금 (7/2-7/8).....451,000
김 수산나 / 김 토마스아퀴나스 / 박 율리안나
이 레오 / 이 율리아 / 임 사무엘 / 익명(1)

< 진 례 인 내 >

미 사 (M a s s)			교회성사 (Confession)	
	주일미사 (일요일)	대 성 당	오전 7:00, 9:00(Eng.), 10:00, 11:00, 12:00(교중) 오후 4:00, 5:00, 6:00, 7:00(청년), 9:00	
		소 성 당	오전 9:00(중·고등부), 11:00(초등부·술봉이)	
	주일미사 (토요일)	대 성 당	오후 6:00, 7:00(늘푸른 청년)	
	평일미사	대 성 당	오전 6:30, 오후 6:00, 7:00 (월요일은 오후 7:00 미사 없음.)	
	성지미사	지하성당	오전 10:00 (월-토)	
	직장인미사	소 성 당	매주 금요일 낮 12:15 (공휴일 제외)	
			유아 세례 (Infant Baptism)	
			매월 첫째 주일 오후 1:30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